

 교육부		<h1>설명자료</h1> <p>2020. 4. 12.(일) 배포</p>			
보도일	배포 즉시				
담당과	양성평등정책담당관	담당자	과장 직무대리 사무관	나현주 (☎ 044-203-7112) 강정훈 (☎ 044-203-7115)	
	학생건강정책과	담당자	과장 연구관	조명연 (☎ 044-203-6877) 민혜영 (☎ 044-203-6544)	

**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
학생들이 올바른 성인지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
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**

- 언론사명 / 보도일시 : 연합뉴스(이효석 기자) / 2020.04.12.(일)
- 제목 : ‘n번방 대책’ 대통령 지시에도... 교육부 성교육 재설계 안한다.

<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>

- 교육부는 n번방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 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‘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(단장 : 정책기획관)를 구성·운영(3.25.~)하고 있으며,
 - * (관련부서) 양성평등정책담당관, 학교생활문화과, 학생건강정책과, 교원정책과, 교원양성연수과, 민주시민교육과 등
-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(국무조정실 주관)에 참여하고 있습니다.
-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(이하 ‘표준안’)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발달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.
 - 학교 성교육은 사이버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성범죄 피해방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내용 전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.

○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토*를 통해 “잘못된 성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”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,

* 공청회('14.1.16.), 시도교육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(~'15.2.),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연구('15.10.~'16.9.), 관련전문가 자문회의('15.8.21./ '15.9.4.) 등

-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안 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.

□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인권·상호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,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.